

1부 4강

말씀 / 창세기 3:1-24

요절 /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

- †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사건
- †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 † 죄지은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떠한가?
- †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1. 뱀에게 들어간 사단은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습니까(1)? 사단의 유래에 대해 밀해 보시오. (참조. 벤후2:4a)

↳ 뱀에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다 - 간사하고 교활하다

뱀 -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은신기술이 뛰어나서 자기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삼켜버린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전 지혜롭고 영리하여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고상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던 존재.

사단은 이러한 뱀의 간교함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접근하였다.

사단의 질문 - ‘참으로 ~하시더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한 번 의심하게 해보려는 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음.

↳ 범죄한 천사들,

2.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2,3)? (참조. 창2:16,17) 사단은 이런 여자에게 무슨 거짓 확신과 교만을 심었습니까(4,5)?

↳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 2:16,17 -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른 점 1. 각종, 임의로를 빼뜨렸다 -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사라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

다른 점 2. 말씀을 정확히 모름 -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굳게 붙잡지 못함으로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대답을 하였다.

다른 점 3.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견을 가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 “먹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적이어서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오해를 하였다.

다른 점 4. 말씀에 대한 절대성 상실 -“죽을까 하노라” ↔ “정녕 죽으리라”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상실

↳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사단은 혼들리는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짓 확신을 심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그 순간 눈이 확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을 심었다.

하나님께서 창2:16,17절 계명의 말씀의 주신 목적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축복과 사랑가운데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의심과 생각에 사로잡혔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돌리는 삶을 살게하려 하심이었다. 축복에 빠져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아담과 여자의 영적생활 지침이었다.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않음으로,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계속하여 애덴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

†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3. 사단의 음성을 들은 여자는 결국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6)? 선악과를 따 먹은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7,8,10)? 여기서 볼 때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할 때 이성보다 육신의 감각이 발달되어 죄를 짓는데 이용된다. 죄의 유혹에 빠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성을 잃어버리며 호기심에 한 번 죄를 짓지만 그 이후에는 죄가 주는쾌락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담은 자의로서 아내의 범죄에 동참하였다.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 아담과 가장 가까운 여자를 먼저 갖은 노력을 다하여 유혹하여 힘들어지게 하였다.

☞ 죄를 지은 인간의 내면 변화

첫째,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떠졌다. 수치심과 자의식이 들어왔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

둘째, 존재의미를 상실하였다(8).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의미가 상실된 것을 보여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였으나 이제 절대적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채 어둠속에 헤매게 되었다.

셋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10).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꼭꼭 숨었다.

☞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존재의미를 상실하며,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숨어지내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4.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9)?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범죄하고 숨어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 우리 인생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수치심과 두려움의 어둔 그늘에 거하는 인간들의 실존을 물으시는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죄악된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초청의 음성이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숨지 말고 빛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요일1:9). 이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다(눅15:4),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눅15:20).

▣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는 죄의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떨고 있는 아담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를 찾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고자 먼저 손을 내미셨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다.

10절 –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함.

11절 – 하나님의 아담의 죄악을 책망하심.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멸시한 죄악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교만의 죄악이다.

12절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함.

13절 –여자가 책임을 뱀에게 전가함.

여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깨질 때 부부간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 하나님은 뱀과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14-19)?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뱀에 대한 저주(14,15)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사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셨다. 뱀이 땅을 기어 다니는 멸시와 굴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자에 대한 저주(16) –여자가 잉태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아담에 대한 저주 1(17-19a) –땅이 저주받음, 수고하는 인생,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인생

-아담의 활동무대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땅은 아담이 원하는만큼 소산을 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겨우 식물을 얻게 되었다.

아담에 대한 저주 2(19b)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고하고 땀흘린 인생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삶에서 저주받은 삶으로 바뀌었다.

잉태하는 것이 축복이었으나 고통이요 저주가 됨, 일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었으나 저주가 됨,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

죄는 우리 인생을 축복에서 저주로 바꾸며,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6. 뱀에 대한 저주가운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15)?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갈4:4) 그의 할 일과 그가 당할 고통이 무엇입니까?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후손 : 사단, 여자의 후손 :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류구속의 계획 :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원시복음(proto-evangelium)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죄의 독소와 사망권세에서 자유케 된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7.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것은(20)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21-24)?
 - ↳ 하와-생명,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구속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음을 보여준다.
 - ↳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입히셨다(21). 그리고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내사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23). 에덴 동산과 생명 나무 실과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를 지킴으로 인생들에게 소망을 남겨두셨다(24).